

以上에서 石製硯 一個와 陶製硯 四個를 復原(別表)해서 그 尺數를 比較해 보면 兩者間의 製作된 寸法이 거의 比等함을 알겠고 時代的으로 別差異가 있는 것같지 않다.

海外에 紹介된 韓國風俗畫의 一資料

洪 以 燮

近世朝鮮繪畫史의 單調로운 一面에 檀園 金弘道와 蕙園 申潤福等 두 사람의 風俗畫를 지닌 것은 이미 先學들의 指示한 바대로 尊重할 바이지만, 特히 蕙園의 風俗畫는 朝鮮繪畫思想史에 있어 現實描寫에 있어 革命的이었던 點에서 우리 近世市井의 文化에의 基本精神을 理解케 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唯一한 資料이었다. 同時에 이것이 檀園, 蕙園當時의 우리 近世의 風俗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莫重하겠으나 보다 前이나 後의 것을 理解케 할 比較資料가 없는 것은 이 方面研究에 孤寂함을免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데서 한 資料로써 一部の 風俗畫를 紹介코자 한다. 이것은 Andreas Eckhardt가 韓國美術史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O.S. Leipzig, 1929, 같은 해에 英譯本도 있음>에서 베르린 民俗博物館所藏으로 紹介된 것이나, 이 에 앞서 A. E. J. Cavendish (F. R. G. S.), H. E. Gould-Adams (R. A.)의 兩大尉의 「韓國과 白頭山」(Korea and the Secret White Mountain; Being a Brief Account of a Journey in Korea in 1891. London 1894.)에 同一한 風俗畫 二十張이 插入 紹介되었다. 筆者의 過眼한 바로는 筆致의 拙한 것은 姑捨하고 우선 蕙園의 그림과 함께 우리 風俗研究에 이바지될 貴한 것이라 하겠다. 그 中 七張은 菊判型 兩面의 크기로 彩色도 되어 있었고 其外의 十三張은 一面 黑白 單色

이다.

그림의 各面에는 한글 畫題를 적고 아주 서투른 朱印이 찍혔음과 筆致의 拙劣은 아이들은 아이들로 男子는 男子, 女子는 女子로 거의 한 類型을 이루고 있음에서 우습고 興味 있으며 畫面의 穢氣는 畫題가 風俗的인 것이 아니었으면 전 저널 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素材를 取한 面이 넓은 것은 또한 注視할 바도 퍼 現實에 即한은 높이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畫題一覽表(×標는 彩色 兩面大)

- 一, 죄(積罪)인 처벌하는 모양(原畫에는 舊式發音에 따른 純한글 記寫이나 여기서는 改訂하여 적어 둔다)
- 二, 여인 침공(針工)하는 모양
- 三, 베 낫는(麻糸生産) 모양
- 四, 검시(檢屍) 하고
- ×五, 여인 방적(紡績) 하고
- 六, 대장(大匠, 鍛工)장이
- 七, 광대 출타고



八, 타작하고

九, 기생(妓生)방에 반단 나고

一〇, 밭갈고 부종(付種 씨뿌림)하는 모양

一一, 망건(網巾) 장인(匠人)

一二, 장자의

× 一三, An Official on a Journey(筆者藏本에 누 亡失돼 있어 英譯 그대

로 적어 본다)

× 一四, 장가가고(新郎가는 모습)

× 一五, 신부 신랑 초례(醮禮)하고

× 一六, 훈장(訓長, 敎師) 글 가르치고(書堂風景)

一七, 매사냥 가고(이것은 이 책 表紙에 金泊으로 박아 놓았다)

× 一八, Playing a Comedy (一三과 同樣)

× 一九, 행상(行喪)하는 모양(喪輿와 喪輿軍)

二〇, 중(僧) 수륙(水陸)하는 모양(水陸齋光景)

이 以外에도 韓國에 關한 歐美의 著作속에는 韓國을 紹介하기 위한 風俗畫가 插入되는 例를 꽤 볼 수 있는데 一九四七年에 刊行된 Frances Carpenter 女史의 「韓國할머니의 얘기」(Tales of a Korean Grandmother, N.Y.)에 더 많이 記入 있는데 그 그림이 一八八八年에 처음 韓國을 찾은 女史의 父親되던 Frank G. Carpenter가 韓國人에게 그려진 것에서 轉載한 것이나 그 中에는 좀 나은 솜씨와 아주 拙한 것이 섞여 있어 있고 描寫한 品이 Cavendish의 것에 比해 粗雜하나 人物이 못나게 그려진 것과는 초리와 이마 등이 全혀 變化가 없이 한 類型을 이루고 있는데 一面 拙한 作品은 Carpenter의 것, Cavendish의 것과 類似한데서 매우 興趣를 돋우기는 하나 Carpenter의 것이 어떤 原畫에서의 部分的인 轉寫임에서 같은 時代의 그림이지만 原畫와의 對照없이는 論하기 어려운 데서 이러한 것이 世間에 流布되고 있음을 紹介하는데 그친다.

羅·麗의 紋樣博 三例

黃 壽 永

百濟의 畫紋方博 八種은 上古의 貴重한 遺品이거니와 新羅統一期에 들어서 더욱 많은 方形 또는 長方形의 紋樣博이 만들어졌고 彫飾의 華麗함도 加增되었다. 이곳에 紹介하려는 三例는 모두 都邑地가 아니라 地方에 分布된 山地伽藍에서 近年에 筆者가 直接 調査한 것이다.

(1) 桐華寺 金堂庵(極樂殿)綠釉方博

方一邊 二〇·八cm 厚 四·八cm의 小品으로서 佛壇周圍에 敷設되었던 것인데 無紋이며 表面에만 綠釉를 바르고 있다. 年代는 西紀九世紀頃으로 推定되는 바 土質은 淡赤色이며 精密하고 背面은 內彎되고 있다(慶州博物館陳列)。

(2) 慶南 咸陽 馬川面 德田里 德峯寺址出土 方博(圖版上)

無釉方博으로서 一邊約 二八·五cm, 厚 四cm인데 中央에 大形의 子房을 보이는 重瓣蓮花紋이 있고 周邊에는 雲文을 刻하였는데 彫線은 鈍厚하며 色澤은 灰黑色 土質은 粗雜하다.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現地의 德川國民學校藏)。

(3) 慶南 晉陽郡 二班城面 龍岩寺址出土 綠釉博(圖版下)

一九五九年 二月 이 寺址에 殘存하는 塔碑等 石物 調査時 多數의 有紋瓦博中에서 特別히 注目된 것인데 大小十五의 破片의 收拾되었다. 一邊 二四cm 厚 四cm의 方形인데 淡綠釉가 火傷되어 銀灰色을 보인다. 紋樣은 中央에 重圈突起가 있고 그 周邊에는 작은 蓮花紋이 둘러있으며 다시 外周에는 細長한 花葉紋이 浮彫되었을 뿐 四隅는 無紋이다. 이같은 綠釉博은 일찌기 開城 興王寺址誌의 一殿址에서 採集된 바 있는데 (3)例와 같이 僻地의 伽藍에서도 使用되었던 事實은 記錄되어야 할 것이다. 年代는 高麗中期以前으로 推定되었다.